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력'

무주군,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갖고 대응방향 등 논의

무주군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무주군은 1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주요사업들의 예산확보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64개 사업으로 2023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980억 원이다.

5월말까지 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은 "국비확보 활동에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당초 목표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1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은 지자체별로 신청한 사업을 각 부처에서 편성해 오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재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위한 청사진 마련

일자리 창출 · 주거 · 교육 여건 개선 등 집중 투자

진안군은 인구활력추진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사업 분야를 확정했다.

군은 투자계획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중요사항을 토대로 진안군인구활력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5월 말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신규시책 발굴, 설문조사, 읍·면 추진단 회의, 청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분야별 투자계획 안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 및 인구활력추진단 분과회의를 통해 분야별 여건, 실행 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을 검토한 후, 행안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작성했다.

또한 지역 여건 및 인구분석, 주민의 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분야인 일자리(소득)창출, 관광개발, 지역인재육성, 주거여건 개선 등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유지하고 소상공인 보호"

무소속 기호 4번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19일 지역경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활력이 필요하다 밝히고 지역경제 분야 공약 설정의 배경을 밝혔다.

지역의 부가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선7기 공약으로 시작된 지역화폐(무주사랑상품권)를 연 400억원 수준으로 확대 발행하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주군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안정기금'을 적립하여 각종 위기에서 소상공인이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식당과 농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무주읍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타워 설치를 제시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지역화폐(무주사랑상품권)를 통해서 무주 경제를 지탱하고 그 주체인 소상공인을 지켜내겠다"며 그 당찬 포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 장비로 설치·교체해 확대 보급한다.

독거노인 응급상황 신속 대응

장수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ICT) 설치

장수군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 장비로 설치·교체해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ICT)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태블릿PC 기반의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등의 센서로 구성된 장치로 화재 및 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은 기존 대상자의 노후 장비 1,055대를 교체하고, 신규대상자를 발굴해 40여 대를 보급하는 등 약 1,1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는 오는 27일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수행기관인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690대를 1차로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410대는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교체·설치로 어르신의 활동, 심박, 호흡 등을 감지해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혹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역량 강화 나서

무주군이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영농규모의 영세화로 인한 농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노력으로, 올해는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비롯해 강소농 대전 참가와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추진, 강소농 자율모임체 등을 운영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팀 하현진 팀장은 "강소농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이 농가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강소농 생산 농산물과 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우수모델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22년 강소농 신청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기본·심화교육을 실시했다.

강소농 교육은 비용절감과 품질개선,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강화를 위해 해마다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강소농의 의미와 역할'이란 주제의 ㈜좋은세상바라기 최병석 대표의 기본교육부터 박태훈 교수가 진행하는 농장사업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심화교육이 실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5월 말부터는 △농장의 차별화 전략과 △소비 트렌트 변화에 따른 유통채널 마케팅 전략, △농업인이 알아야 할 법률, △치유농업 현장실습 등 후속·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19일 농업기술센터 소교육장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진안군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를 비롯해 진안군학교급식지원센터, 영양교사,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학교급식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축산물 등의 식재료 공급단가 안정을 위한 의견 공유 및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밀과 팜유 파동 등 전 세계적인 식재료 품귀현상에 따른 공급단가 인상 문제와 진안군 지역적 특성으로 축산물 단가가 비교적 높은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진안군 학교급식 관련사업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현황 공유,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와 식재료 공급단가 안정을 위한 방안 제시, △농가 및 공급업체의 학교급식 납품 시 애로사항 청취, △식재료 값 폭등에 따른 학교급식의 다양성 및 품질 문제 해결방안 논의 등 관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군민 눈높이 맞는 납세 서비스 제공

무주군은 행정 수요자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특히 홀로계신 고령의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 등의 세목이 있으나 은행 방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고령 납세자가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장려하고 집중 신청기간 운영 및 읍·면 순회 상담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